

“위안부 할머니들의 꿈 말하고 싶었죠”

전역기부 창작실험음악극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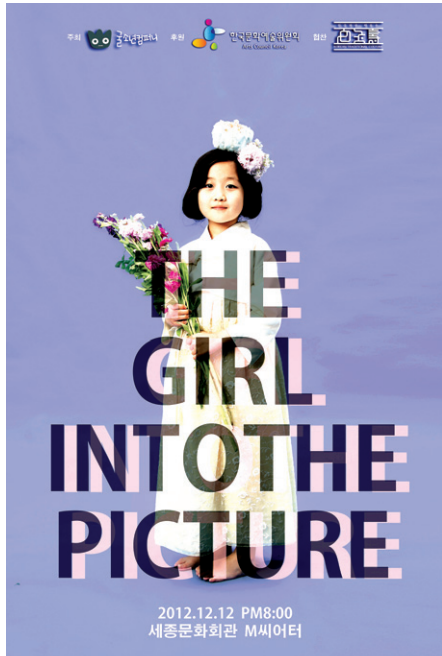
고등학교 시절 위안부 할머니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소녀는 역사적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났다. 대학생이 된 소녀는 위안부 할머니를 꼭 찾아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수요집회를 찾게 됐고 이후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처음에 그녀는 막연히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간식을 준비해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해금 연주를 하며 작은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도 자신과 똑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알게 됐고 그들의 꿈을 엿보게 됐다. 이제 소녀는 마음 속에 작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 우리나라에 정신대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그런 계획 말이다. 그가 바로 해금 연주자 윤주희다.

윤주희 씨(해금 연주자)가 연출하는 창작 실험 음악극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가 12월 12일 저녁 8시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린다. 그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린시절 꿈과 그들의 현재를 작품 속에 담아보고 싶었다고 한다.

“위안부라는 단어가 대중들에게 주는 중압감과 편견들을 없애보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공연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적 환경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연은 위안부 자체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당시들의 어린 시절 꿈과 소녀적 감성을 다뤘습니다”

이번 공연은 올 초 데뷔 음반 ‘소우주(micrococosm)’를 발표한 해금 연주자 윤주희 씨를 중심으로 영화감독 이종필, 포토그래퍼 구송이 등 젊은 예술가들이 의기



‘그림속으로 들어간 소녀’ 공연 포스터

12일 세종문화회관서 공연

해금연주가 윤주희 씨

나눔의집 봉사활동 하며

위안부 진실알리고자 결심

사비 털어 공연 제작비 마련

투합했다. “2009년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공연 팀을 구성했어요. 총 11곡이 연주되는 이번 공연은 음악과 무용, 영상이 접목된 하이브리드 형식의 무대로 꾸며졌죠. 공연 수익금은 전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윤 씨는 혼자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혼자서 하고 싶었냐고 물어보니 의미 있는 서른을 맞고 싶어서라



윤주희 씨(사진 왼쪽)가 연출하는 창작 실험 음악극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가 12월 12일 저녁 8시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린다. 윤 씨는 친할머니와 조카를 배우로 등장 시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 꿈과 그들의 현재를 작품 속에 담아보고자 했다.

고 말한다. “제 나이가 올해 스물아홉인데 서른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는 창작지원금 1천만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지요. 그 돈을 제 개인 공연에 쓸 수도 있었지만 이번 공연을 완성하는데 하기로 했습니다. 또 텀블벅(http://www.tumblr.com/yoonyoohee)이라는 창작 기금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도 제작비를 모으고 있죠”

하지만 혼자서 공연비를 충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에 분명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녀를 응원해주었다. 어머니가 제작비의 일부를 후원해주는 것은 물론 친할머니와 조카가 영상에 직접 출연하는 등 가족들 모두가 그녀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김순덕 할머니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그녀의 어린시절부터 현재의 모습을 담아내고자했죠. 어머니께서는 제작비를 빌려주시기도 하셨죠. 걱정도 하셨지만 흔쾌히 모두가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공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나눔의집 할머니들을 볼 때면 새롭게 힘을 얻는다고 한다. “아무도 할머니를 알아주지 않고 진실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이를 알리기 위해 곳곳이 노력하지 않아요. 저도 그들을 통해 정신적 힘을 얻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추후 보완작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이라는 윤 씨. 그녀는 오늘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1544-155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충만한 삶은 소멸에서 온다

박노해 ‘남김없이 피고 지고’展

“나는 이 지상에 잠시 천막을 친 자/초원의 꽃처럼 남김없이 피고 지고/자신을 다 사르며 온전히 돌아가기를”

80년대 <노동의 새벽>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시인 박노해는 신자유주의 시대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산문으로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순수의 땅 티베트를 카메라에 담아 또다시 대중의 곁을 찾아왔다. 박노해 티베트 사진전 ‘남김없이 피고 지고’展이 2013년 2월 27일 종로구 부암동 라 카페 갤러리에서 열린다.

그동안 파키스탄 사진전 <구름이 머무는 마을>展, 버마 사진전 <노래하는 호수>展으로 대중들을 찾았던 시인은 바람과 유랑의 땅 티베트를 흑백 필름에 담아 보여준다.

견간만 해도 숨이 막히는 해발 3500미터 고원의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 위에서 오체투지를 바치는 티베트 청년은 이렇게 오체투지 순례를 하다 보면 나를 괴롭혀온 탐욕과 미움과 그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텅 빈 몸과 마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물질의 결핍 속에서도 매일의 기도와 순례로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만한 삶이란 ‘축적’이 아닌 ‘소멸’에서 온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준다. 하루하루를 선물 받았다는 마음으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티베트인의 생의 화두가 시인의 사진 속에 고스란히 느껴져 온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리를 베는 여인들의 노래 소리, 초원을 유유히 걸어가가는 양떼

티베트 풍경 흑백사진 22점 전시

2월 27일까지 라 카페 갤러리

들의 평화로운 한때, 유목민 여인의 수줍은 미소, 바람이 경전을 읽어준다는 오색의 타르초, 가장 낮은 자세로 오체투지를 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승려들의 모습 등 흑백 사진 22점을 만나볼 수 있다.

내 안에 어둠이 밀려온다면 ‘남김없이 피고 지는’ 티베트의 저 찬란한 초원의 꽃들을 보라. 그곳에는 온몸을 살라 진정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생의 신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02)379-1975

정혜숙 기자



박노해 티베트 사진전 ‘남김없이 피고 지고’展이 2013년 2월 27일까지 종로구 부암동 라 카페 갤러리에서 열린다.

천진불의 겨울이야기... 풍경소리 35집 발매



좋은벗풍경소리 35집 앨범 표지

겨울 불교학교 교재용 8곡 실어

“눈부시게 빛나는 송이송이 눈송이 소복소복 쌓이면 길을 걸음 뺏드득/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지요/ 엄마 닮은 눈사람 아빠 닮은 눈사람 추운 줄도 모르고 마냥 웃고 있는데 다정하신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덕신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 ‘겨울이야기’

좋은벗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풍경소리 35집’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가을과 겨울’ ‘겨울이야기’ ‘눈이 내립니다’ 등의 찬불가 8곡이 실렸다.

좋은벗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35집 앨범을 내게 되었다. 35집과 함께 겨울불교학교를 찾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며 새 앨범을 내는 소감을 밝혔다.

풍경소리는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겨울 불교학교 학생들을 위해 발표된 작품집이다. 이 앨범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의 교재로 활용되며, 또한 일선의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제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실시

문화사업단, 내년 1월 28일~ 2월 2일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제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불교문화상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육성하고 내외국인들의 템플스테이 및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공모부원은 템플스테이 및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기념품 혹은 상품 디자인으로 소재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접수는 2013년 1월 28일~2월 2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며 불교 및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2013년 2월 15일에 발표되며, 2월 28일 시상식에서 대상 500만원(1명), 우수상 200만원(2명), 한국디자인진흥원 장상 특별상 200만원(1명), 장려상 100만원(5명), 특선 50만원(10명) 등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품은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전시된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참여 기회도 선물한다. 신종일 기자



제 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포스터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불성의 광명과 긍정의 힘

제발하는 ‘천수다라니’ 수행지침서

불교TV 방송강의 중

《다라니의 힘》
수지심사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부분컬러 | 148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참 행복을 위한 ‘무한능력’ 일깨우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상스님 수행일기 · 법문 담은 ‘마음의 힘’ 사용설명서

덕양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이 당신의 수행일기와 법문을 통해 자성(自性)을 깨닫는 다라니수행의 길을 체험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광명의 깃발이자 신통의 보물창고’로 불리는 대비주를 통한 집중수행으로 불성의 무한능력을 일깨우는 불교적인 자기개발서이자 다라니수행 안내서가 되도록 편집했다.

일산 덕양선원 031-907-7172, 다음카페(cafe.daum.net/zeol)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화도 허락지 않는다
신문염승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